

## 다산포럼

## 인문과 예술에 대한 관심

조 광  
고려대 한국시학과 명예교수

오래 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갔을 때였다. 나는 거기에서 미국의 예술적 특성을 드러내는 그림을 찾다가 프랭크 미초(Frank Mechau, 1904~1946)의 그림들을 발견했다. 당시 나는 유럽의 미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미국 미술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그림들은 감식안이 어두웠던 나에게도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는 데에 한몫을 했다.

그리고 최근 나는 네브라스카 오갈랄라라는 매우 작은 마을에서 프랭크 미초의 벽화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이 벽화에는 유래가 있었다. 1938년 미국 연방정부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줌과 동시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는 궁벽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예술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편다. 뉴딜정책은 이렇게 인문이나

예술 분야에까지 손길이 미쳤던 것이다. 프랭크 미초는 네브라스카 12곳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1940년에는 콜럼비아 대학 회화 및 조각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보면, 이 벽화를 제작하면서 당시 그는 이미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벽화는 '긴 뿔들'(Long Horns)이라는 제목으로 4×12피트의 크기였다.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살았던 그는 이웃이었던 이곳 서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카우보이가 '뿔이 긴' 소떼를 물고 이곳 오갈랄라에 도착한 장면을 우체국의 벽에 남겼다. 작가는 이 벽화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존경과 서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담았다.

다산 정약용의 유품을 접하다 보면, 그가 경제론이나 새로운 철학에만 능했던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가 남긴 서화를 통해서도 이러한 그의 특징이 드러난다. 지금 이전시에서 운영하는 월전미술관에는 다산 관계의 낙관들이 보존되어 있다. 입장학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던 월전 장우성 회백이 감정을 받아 소장한 낙관들이다. 이를 보면 다산이 생각보다는 많은 미술작품을 그렸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다산은 서화에도 일가견을 가진

예술가임과 동시에 경제가요, 철학자였다. 또한, 그는 19세기 조선의 대표적 시인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다양성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습득한 문사철(文史哲)에 관한 폭넓은 지식 때문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산이 가지고 있던 과학정신의 기초도 문사철을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당연한 의무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화된 지식만을 전부인 양 생각한다. 우리의 문화전통에 따라 문사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유용성에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직 이 분야만이 밥을 먹여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입장에서 인문과 예술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오늘의 지식인을 보자면 그들은 한낱 아전이요, 괭이에 불과할 것이다. 아전과 괭이로서 자신의 글례를 탈출하는 길은 인문학적 소양에 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인간을 알게 되고, 조화와 화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만일 이를 모른다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삐딱한 활동보다 나을 리가 없다. 문사철은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를 전인(全人)으로 키운다.

지난 세기, 세계를 덮친 대공황을 극복하자 했던 미국의 뉴딜정책은 지식노동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잊지 않았다.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역경에 사로잡아 아름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프랭크 미초는 그의 멋진 작품을 궁벽한 촌구석 우체국의 벽면에 깨지 남길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1981년 이 벽화를 다시 찾아내어 때를 빼고 원형을 되찾게까지 해주었다. 인문과 예술에 대한 이러한 그들의 배려는 오늘의 미국을 탄생시키고 유지해 가는 힘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지도 네 달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문과 예술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확고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박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 대부분은 미국통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친미주의자라면 대공황의 경향에서도 인문과 예술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미국의 정책까지도 배워야 한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예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 그리고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삶까지도 별 조건 없이 지켜주려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나라의 미래로 보장해 줄 것이다. 나는 인문과 예술 진흥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도 궁금하다.

## 기고

## 출산은 국가의 미래다

노 희 용  
동구청장

'저 먹을 것은 본인이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옛말이다. 보통 형제자매가 7~8명이던 시절 부모들은 꽉꽉했던 살림 속에서 먹이며 키워나갈 걱정을 그렇게 덜어내려 애썼다. 그러나 지금은 TV 드라프로그램의 소재로나 볼 정도로 드물다.

아니, 너무 아이를 갖지 않아서 탈이다. 탈이다 못해 미래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없다면 국가가 어떻게 있을 것이며 사회의 존립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미래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주장이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됐다. 200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7로 떨어져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가. 돈 때문인가. 물론 비용문제가 만만찮다. 그러나 딱히 그것만은 아니다. 어렵사리 키운들 제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년 실업을 보라. 그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후의 생의 주기가 엉망이 돼버린다.

교육, 주택, 기본소득과 노후생활 보장,

의료 등의 부족, 계층 간 이동성에 대한 믿음 상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로 인한 국민의 낮은 행복수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있다.

한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자랑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범 정부차원의 산아 제한 정

책 등으로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의 기입 기 동안 낳는 자녀의 출산율)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정책을 꾸는 웃지 못할 일이 계속됐다.

동구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밟았고 나섰다. 어떻게 해야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이 조성될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축하금을 주고 영유아 건강수당, 동구 아이사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경감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것은 다 그같은 맥락에서도다. 동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를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일련의 출산장려책을 펴는 거다.

이밖에도 디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디자녀 가정 이용요금 할인, 디자녀산모 무료 스케일링 지원, 난임부부 및 디자녀산모 반값 한방 철약사업,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복한 아빠교실 운영 등 출산장려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조작개편을 통해 가족복지 전담기구인 여성아동복지과를 신설, 출산·보육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통합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655명이던 출생수가 2011년 781명, 2012년 893명으로 매년 전년대비 10%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출산은 가정의 축복이자 국가의 미래다.

그러나 현실에서 각 가정은 출산이 부담이 된다. 바로 그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풀여줘야 한다. 출산·보육 지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히 하다. 70~90년대 대한민국의 팔목할만한 성장은 인구성장에 힘입은 바 아닐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진다'고 선언한 바 있다. 출산과 양육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괴롭고 체계적인 투자와 후속조치가 조기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어깨동무를 하여 지혜를 모아 행복한 출산과 양육의 인식 전환과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동구는 힘닿는 데까지 그렇게 하겠다.

40대 운전기사가 만취상태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을 태운 채 통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어른의 몰양식이 어린이들을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뜨렸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단속이 아니었다면 자칫 대행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다.

광주부경찰에 따르면 운전사 김모(45)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25인승 버스에 원생 7~8명을 태우고, 음주 운전과 신호위반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최소 수치인 0.10% 상태였다.

통학차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함께 탔고 있었지만 음주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적발된 통학차량이 어린이집과 임대계약을 한 관광회사 차량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문제화되자 부랴부랴 위법사항

3회 이상 적발 시 어린이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야웃제'와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등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관심이 떨어지면 법망을 피해가거나 용두사미가 됐던 게 어이 한 두 가지인가.

정부는 무엇보다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형사처벌로 병행해야 한다. 속이 타들어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이다.

어른들의 그릇된 행태와 당국의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이 다시금 비명횡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기고

## 싸우며 읽은 만화

신 종 해  
광주선광학교 교장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어느 가수의 노랫말이 있다. 고쳐 살 수 없는 삶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뜻이다. 한 번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구나 잘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잘 살고 싶다고 해서 잘 살다면 못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롭고 잘사는 삶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스승님은 멀칠을 생각하다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서 제자를 강물 속에 머리를 넣고 놓 나오게 하였다. 제자는 숨이 차서 바둥거렸다. 그러나 바둥거릴수록 더욱더 세게 머리를 누르고 놓 나오게 하다 물도 몇 모금 먹이고 그로기 상태가 되어서야 스승은 제자를 끼내주며 하는 말이 "조금 전 물속에 있을 때 무엇이 가장 하고 싶

었느냐?"하고 물으니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스승은 "바로 조금 전 네가 숨을 쉬고 싶었던 것처럼 절실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일러 주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뜻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라면 그걸 헤쳐나가야 한다. 어렵사리 키운들 제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년 실업을 보라. 그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후의 생의 주기가 엉망이 돼버린다.

그리고 만화가는 저렇게 재미있는 것인가. 싸우고 맞으면서도 만화를 봐야 하는가, 급기야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도 만화를 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 동네 만화방에 있는 만화를 전부 섭렵하였다.

그리고 만화는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가정이다. 그리고 6남매 아이들과 방 한 칸에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초등학교 3~4학년 달성 무렵, 어머니는 아이들의 어깨너머로 늦게나마 한글을 깨우쳐 만화를 보기 시작한다. 만화가 재미있어 만화를 보며 키득거리며 저녁 내내 불을 켜놓으니, 깊은 잠을 못 잔 아버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 집은 하구한 날 가정불화다.

그리면서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만화를 본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께 꿈틀을 들으며 가정싸움을 하면서도 만화를 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겠지?

그리고 만화는 학습의 힘을 바꿔준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꿈틀을 들으며 가정싸움을 하면서도 만화를 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겠지?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社 說

## 5월 광주에서 되돌아 본 반민주적 작태들

다시 오월, 민주와 인권, 평화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죽음과 피로써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어낸 5·18은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5·18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공식 사망자 수가 확인되지 않고, 발표 명령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등 희생자의 원혼조차 맡끔히 달랠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과 광주시민은 이념논쟁의 굴레 속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5·18에 대한 편협한 평가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이다. 일부 세력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5·18을 '북한 세력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리고 있다.

여기 5·18을 대하는 보수정권의 태도도 유감이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공식 추모곡으로 제창되어야 한다. 나아가 5·18의 전국화, 세계화를 다져나가야 한다.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다시금 밟아서는 안 된다.

## 만취상태서 어린이집 통학차 운전하다니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예사라고 한다. 하지만, 경찰과 자체의 단속은 미흡하고, 운전자에 대한 관리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역시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위임 받았다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하다하다.

정부는 최근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문제화되자 부랴부랴 위법사항 3회 이상 적발 시 어린이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야웃제'와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등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관심이 떨어지면 법망을 피해가거나 용두사미가 됐던 게 어이 한 두 가지인가.

정부는 무엇보다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형사처벌로 병행해야 한다. 속이 타들어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이다. 어른들의 그릇된 행태와 당국의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이 다시금 비명횡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無 等 鼓

1985년 4월 19일, 서울 수유리에 자리한 4·19 묘역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25주년 행사가 시작되기 전 누군가 '4·19'의 기념식이라 쓰인 플래카드에서 '의거'만 도려냈다. '혁명'이 아니고 '의거'로 규정하는 5공화국에 대한 작은 반항이었다.